국립공원 무등산의 대표 절경으로 꼽히는 장불재에 초겨울 하얀 눈이 내려 앉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세계의 '명품 공원'으로

2013 이슈 진단 ❸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관리 인원·예산 대폭 늘어 체계적인 보호사업 가능

정상 군부대·통신시설 등 흉물 … 이전 등 과제 산적

지난해 12월 27일 광주·전남지역민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환경부에서 이날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도립공원인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확정한 것이다.

무등산은 올 3월 4일 국립공원 지정 사실이 관보에 게재되면서 우리나라의 21번째 정식 국립공원이 됐다. 국립공원 신규 지정은 1988년 변산반도·월출산 이후 24년만이다. 공원면적만 75.425㎢로, 광주 북구와 남구, 화순, 담양 등 4개 자치단체가 포함됐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관리 권한도 광주시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어갔으며, 관리 인원이나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광주시는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계기로 무등산을 세계적인 명품 국립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국립공원 무등산의 품격을 높여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이를 광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시는 1단계로 내년 2월까지 국가지질공원 인증 사업을 마무리하고, 세계지질공원 인증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나설 계획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도 무등산 탐방로 정비를 비롯한 자연자원 조사 등 무등산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최근에는 무등산내에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2000여종이 넘은 야생 동·식물이 서식한다는 연구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국립공원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70여명의 인력을 투입, 23개 분야 25개 팀을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 무등산의 생태자원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의 격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등산 승격 이전부터 제기돼온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방송·통신시설 통합 등 주요 해결과제는 아직까지 답보상태다.

무등산이 진정한 국립공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상에 주둔중인 공군부대 이전과 방송·통신시설의 통합 및 이전 등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1966년부터 해발 1187m 무등산 정상에 레이더 등 군사시설과 함께 공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시설 5곳도 흉물로 남아있다.

광주시는 국립공원 승격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무등산 정상 군부대 시설 이전을 대선공약으로 요구했으나 미반영됐으며, 방송·통신시설을 통합하는데 도 예산만 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군부대 이전은 정부에서 직접 나서야 하지만, 국립공원 승격 이후 아직까지 정부의 입장 발표가 없는 상태이며, 방송·통신시설 통합을 위해 방송 3사가 몇 차례 모이긴 했지만 500억원이 넘는 이전비용이 걸림돌이다.

이와 함께 기준 공시지가만 800억원에 이르는 사유지 매수도 중요 해결 과제 중 하나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은 사유지 매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올해 관련 예산은 20억원에 그치고 있다. 공시지가로만 매수하더라도 국립공원 면적 중 77%에 이르는 사유지를 매수하는 데 4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대규모 예산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자연과의 교감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진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55) 겨울 나그네

프리드리히 작 '안개바다…'

미국 극작가 테네시 윌리암스는 "추억은 음악 속에 있다"고 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우연히 듣게 되는 노래 한 곡으로 지난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다가왔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여고시절 클래식 애호가였던 영어선생님 덕분으로 서양 고전음악에 입문, 당시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나 '겨울 나그네' 등을 감상할 수 있었다. '지적인 여학생'을 꿈꾸며 겉멋으로 클래식 음악을 가까이 했으나 이제는 인생을 실어가며 그 음악과 함께 한다.

예년보다 일찍 폭설이 내린 한 겨울 속에 서니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가 듣고 싶어진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나그네의 방랑을 노랫말에 담은 가곡 '겨울 나그네'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겨울 여행'이라 한다. 그 까닭에 '겨울 나그네'를 듣는 것은 한없이 쓸쓸한 마음으로 황량한 그 어딘가를 홀로 여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카스파 다비트 프리드리히(1774~1840)의 작품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1818년 작)는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음반 커버 그림으로도 유명하다. 그런가 하면 이 작품은 여행상품 광고 이미지나 철학도서 커버 이미지로도 자주 등장한다. 격랑의 파도를 눈앞에 두고 가파르게 솟은 바위 위에 한 남자가 뒷모습을 보이며 서 있다. 가없는 공간 속에서 절대 고독과 대면하고 있는 듯하다. 작가 역시 "자연과의 교감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했다.

서양화에서 근경에 뒷모습의 인물을 등장시키는 것은 보는 이의 시선을 화면에 끌어들여 관람자의 공간을 회화의 공간과 연결시키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숨이 멎을 것 같은 감동이 오래도록 함께하는 이유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지방선거용 포럼' 우후죽순

출마 앞둔 후보 외곽지지세력
지역현안 토론 내세워 '세몰이'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포럼 창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자생적인 형태로 창립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후보들의 외곽 지지세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달 중 정계·재계·학계·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포럼 창립이 줄을 잇고 있다.

우선 오는 22일께 광주지역 각 계층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회원 1만 여명이 참여하는 가칭 '아름다운 광주를 위한 행복한 동행 창조포럼'(이하 창조포럼)이 발족될 예정이다.

가칭 '창조포럼'은 시민과 함께 변화와 도약의 창조도시를 이끌 새로운 지역 그룹으로, 참여와 소통을 중시한 열린 커뮤니티 구현을 통해 창조적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조포럼'은 18개 분과로 세분화되며, 정치·경제는 물론 제 단체 및 이념, 빈부, 세대 간 양극화 해소를 통해 따뜻한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창립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임원 구성은 되지 않았지만, 친(親) 강운태 광주시장 인사들이 대거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몰이를 위한 포럼으로 분석된다.

내년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이용섭 국회의원과 박성수 전남대 교수가 상임고문을 맡은 '민생실천 희망연대'(이하 희망연대)도 지난 10일 창립식을 가졌다.

희망연대는 오는 16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과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희망연대는 광주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 실현 등을 창립 취지에 담았으며, 상임대표는 최병운 치과의사와 신일섭 호남대 교수가 맡았다.

희망연대는 앞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희망이 넘치는 광주 건설'을 위한 미래 비전을 실사구시적인 입장에서 모색하고 범시민운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희망연대도 자생적인 모임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 이용섭 의원의 적극적인 지지그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국민과 함께 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도 광주지역에 대규모 포럼 형태의 조직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위원장은 윤장현 광주전남미래비전21 이사장을 중심으로 광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그룹, 정·재계 인사들을 포함한 대규모 '포럼'을 만들어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해 광주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들도 잇따라 지역별 포럼 등을 창립하는 등 '포럼'을 통한 지지세 확대와 세 몰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때만 되면 각종 포럼이 탄생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특정 후보들의 외곽 지지세력으로 보면 된다"며 "내년 광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세몰이를 위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올려달라"

시도 교육감들 국회 방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11일 국회를 방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3%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경남도교육감)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3.27%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새로운 추가 재원도 없이 최근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기존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충당하느라 지방교육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41조29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3억원(0.6%) 증가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는 3조9778억원으로 2013년 운영비 대비 1조1112억원(39%)이나 늘어 교육과정 운영사업뿐만 아니라 노후교육시설 개선사업도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복지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축소나 폐지가 어려워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재정 확충 방안 없이 추진하면 교육 자치 및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이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